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최 화 속(이화가정호스피스실무책임, 본회의사)

호스피스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찌다가 호스피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무를 보고 소식지를 만들고 전화 받는 일을 주로 하는 그 자매의 마음에 말없이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소개해 봅니다.

요즘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웰빙 well being 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것 먹고 유별나게 놓고 희귀한 것 마시며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 양, 말초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그리고 참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좁고 험한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꽤 많은 사람들의 삶은 묻혀져 버리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현란함, 찬란함 그리고 속도감 있는 것에 몰입하도록 유혹하는 분위기와는 맞지 않아도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당신 형상 닮은 사람을 보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기우리며 주님의 삶처럼 살아보려고 오늘도 고통받는 말기 환우들과 호흡을 함께 하는 호스피스 종사자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환우들에게 먼저 드리는 그들의 삶은 맑은 밤 하늘에 쏟아지는 별처럼 귀하고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우들의 다양한 고통도 가슴 아프지만 영혼의 참 주관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끝날까봐 온갖 정성과 기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호스피스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 가장 든든한 기초석이라고로 생각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최선의 섬김으로 주님께 하듯이 환우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사실 한 가정에 불치병 환자가 하나 생기면 온 가족이 모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제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사막에서 만난 샘물처럼 갈한 목, 피곤한 삶에 활력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호스피스 활동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보다 많은 환우들에게 사랑을 부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이미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교육을 통해서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를 찾아 눈물어린 사랑으로 헌신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보시고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는 말씀을 듣는 것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